시민일보 SIMIN NEWSPAPER
since 1994
시민일보 창간31주년
지방자치의 지킴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시민참여 정론직필

시민일보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 02)3676-2114 www.siminilbo.co.kr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제6116호

섬김·모심·채움·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경민대학교
1·7호선 도봉산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金, '조건부 북미대화' 띄우기

〈김정은〉

李 "양국 합의하면 수용 가능"

〈이재명〉

金 "트럼프와 좋은 추억… 비핵화 포기땐 만날수도"

李 "북핵 동결은 임시조치로 실현가능 현실적 대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는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힘을 싣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매체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15~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이)임시 조치'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인 목표(비핵화)를 향해 무의미한 시도를 계속할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일부라도 성취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의 북한 핵 개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현재로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히 규탄되어야 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가능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이어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제재나 힘의 시위로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는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한 그는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폄훼하면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쟁 억제력'이라는 핵무기의 '제1사명'이 상실될 때에는 '제2사명'이 가동된다"며, 이 경우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고 이는 곧 궤멸을 의미한다"고 위협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李 지지율 53% 2주 연속 하락… 민주 44.2% 국힘 38.6%

리얼미터 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연속 1.5%p씩 하락한 53.0%,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5%p 상승한 43.6%로 각각 집계됐다.(잘 모름 3.4%)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8%p↓), 대전·세종·충청(2.9%p↓), 인천·경기(2.4%p↓), 대구·경북(1.8%p↓)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울(1.5%p↑)과 광주·전라(1.4%p↑)에서는 소폭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5.1%p↓)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고 50대와 20대에서도 각각 3.2%p씩 떨어졌다.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에선 전주 대비 3.7%p, 1.7%p, 1.6%p 모두 하락했다.

또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44.2%(0.1%p↓), 국민의힘 38.6%(2.2%p↑)로, 5주만에 오차범위(±3.1%p)내로 크게 좁혀진 결과가 나왔다.

뒤를 이어 개혁신당 4.1%(0.3%p↓), 조국혁신당 1.9%(0.7%p↓), 진보당 1.5% 순이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각각 5.3%,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10만원'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30일 '물산업 발전포럼'…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경기도가 물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경기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해외 실증화 사업 추진성과와 성공사례를 통해 도내 물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소개 ▲베트남 물시장 현황 공유 ▲물기술 실증화 성공사례 발표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베트남 껀터시 수자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베트남 현지 수자원 관리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국내 물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한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베트남 속짱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물기업이 현지 하천에서 수질모니터링 기술을 실증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도내 물기업은 해외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하고 향후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실증화 사업 성과와 향후 확산 방안도 논의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 물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물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라며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도내 물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참가

인천시, 24~26일 홍보관 운영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 참가해 인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시 솔루션 전시회인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킨텍스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Better Cities, Better Lives'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전세계 스마트도시 분야의 정부·기업·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스마트도시의 발전 방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로, 개막식·콘퍼런스·비즈니스 상담·기술 솔루션(solution)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는 인천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관에서는 ▲인천시 스마트 빌리지 사업 ▲차세대 버스정보 전략 자산(BIT) 구축사업 ▲디지털트윈 기반 원도심 교통 분석 솔루션 구축사업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 빌리지 사업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는 2023년부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도시에서 마을 단위로 지역사회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로 해결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버스정보 전략자산(BIT) 구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개발되는 모델로 버스정보안내기에 상업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반 원도심 교통 분석 솔루션 구축 사업은 스마트교차로, 디지털트윈, 신호최적화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의 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기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기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광역 단위로 최초로 구축이 진행 중인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서는 ▲양방향 화상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2인 워킹머신, 스마트테이블)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